**<스탑 돈 스탑> 시놉시스**

용인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김채은

과방에 둘러 앉아 회의를 하는 **준희**(24세/여/연출), **민아**(22세/여/촬영부)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 노트북을 보며 누군가와 통화 하고 있는 준희. 준희의 노트북에는 기타 모양 스티커, 유명 밴드 스티커 등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통화를 마치고 머리를 쥐어 짜며 괴성을 지르는 준희. *“나 이번에 진짜 영화 못 찍는거 아냐..?”* 불안함에 다리를 덜덜 떨다가 옆자리에서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민아에게 잘 안되면 이걸로 다큐라도 만들자며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모든 순간을 찍어달라고 부탁한다.

홍대 길거리에서 촬영 준비를 하는 준희 팀. 그런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민아. 그때 주연배우로부터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는 전화를 받는다. 혼란에 빠진 준희와 스태프들. 준희는 다른 배우들에게 전화도 돌려보고 촬영일정을 미룰 수 있는지 알아보며 방법을 찾는다. 모두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 준희팀. 분위기가 싸해지고 예민해진 준희, *“아 그냥 촬영 접을까...”* 혼자 중얼거린다. 그 말을 들은 촬영감독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 너만 중요해? 나도 이거 찍어야 돼.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접으면 너 나중에 졸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며 나무라고 그 말을 듣고 빡친 준희는 촬영감독과 말싸움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주변 스태프들이 눈치를 보며 둘을 말리다가 몸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준희는 그런 자신을 찍고 있는 민아를 발견한다. 이제 됐으니까 그만 찍어도된다고 말하지만 카메라를 끄지 않는 민아. 지금 장난 아니라고 카메라 끄라고 주변 스태프들이 말리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카메라를 뺏으려 하는 스태프들과 다툼을 벌이면서 카메라를 사수하는 민아의 모습에 당황한 준희는 그를 피해서 도망친다. 골목길을 달렸다가 건물에 숨었다가 하면서 민아와추격씬을 찍는다.

길거리로 도망 나온 준희 뒤에서 민아가 따라오지 않는지 살피면서 걷다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선다. 건물 내부에서 들려오는 밴드 사운드에 홀린 듯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과거회상>

계단을 내려오는 준희 아까와 다르게 교복을 입고 기타 가방을 메고 있다. 준희의 얼굴에 색색의화려한 조명이 닿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음악이 들린다. 준희의 옆으로 같은 교복을 입은 친구가 어깨동무를 하며 말을 건다. *“야 우리도 졸업하면 저기서 연주하자. 존나 멋있겠지.”* 친구를 바라봤다가 다시 무대를 보는 준희. *“글쎄..나는 안될 것 같아.”* 혼자 중얼거린다.

<현실>

눈을 감았다 뜨자 보이는 텅 빈 무대. 그를 바라보는 준희의 뒷모습을 찍고 있는 민아. 민아가 카메라를 끄고 준희가 뒤를 돌아본다. 민아에게 왜 이렇게 까지 찍느냐고 묻는 준희. 민아는 과거 촬영 도중 중간에 빠지게 됐는데 나중에 완성된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듣고 민아에게 다시 카메라를 키라고 하는 준희.

다시 처음 촬영장소로 함께 돌아온 준희와 민아, 현장에 다른 스태프들은 보이지 않는다. 준희는 어떻게든 찍어 보자며 자신이 배우를 맡고 너가 촬영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민아에게 무슨 일이있어도 카메라를 끄지 말라고 말한다.
과방에서 빔프로젝터로 완성된 영화를 보는 준희와 민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다. 민아에게이제 만족했냐고 묻는 준희. 민아는 카메라로 준희를 찍으며 엄지를 들어올린다.